

2018  
Vol. 3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8  
Vol. 3



## CONTENTS

- 03 세종시 쓰레기통 디자인 방향과 접근방법 | 이 윤 희 연구위원
- 05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 지 남 석 연구위원
- 08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합리적인 안분체계 정립 | 김 흥 주 연구위원
- 12 세종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 | 민 경 선 연구위원



## I. 제안배경

- 최근 상가지역과 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일회용 커피컵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로 불법투기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버스승강장 주변 등에 쓰레기통 설치 관련민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세종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변 쓰레기통을 도입할 시 디자인 방향과 자연친화적 디자인의 방안으로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그린미디어를 접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II. 쓰레기통 디자인 방향

- 세종시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시 상징성 및 정체성(identity)을 갖는 디자인이 필요함
- 공공시설물로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용적 디자인이 필요하며, 유용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므로 구조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지성, 사용하기 쉬운 접근성, 사람의 감성을 접목한 조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쓰레기통 디자인은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가로시설물) 개념 측면에서 주변 공공시설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결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스트리트 퍼니처로서의 쓰레기통 디자인 키워드



## III. 디자인 접근방법

### ● 도시 상징성

-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용자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이 필요함
- 세종시의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기존의 도시적 이미지에서 탈피한 'Eco-friendly', 'Human-centric', 'Emotion', 즉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요구됨
- 세종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ex. 세종대왕, 한글, 무궁화, 복숭아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세종시 쓰레기통 디자인 방향과 접근방법



## 인간중심적 디자인

- 인간중심적 개념을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범용적 디자인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요소로는 접근성, 기능성, 안전성, 수용성이 있음
  - 접근성 : 쓰레기통의 위치, 방해요소 배제, 적절한 투입구의 위치와 크기
  - 기능성 : 구조적 형태 및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전달 기능
  - 안전성 : 쓰레기통 재질에 따른 부식 및 화재 위험성 예방
  - 수용성 :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픽토그램, 외국어 표기 등)

## 자연친화적 디자인

- 최근 가로시설물(쓰레기통, 벤치, 안내판, 자전거 거치대 등)이 첨단기술과 결합되어 효율성을 높인 스트리트 퍼니처로 재탄생하고 있음
- 영국의 스마트 쓰레기통의 경우 쓰레기통 옆면에 광고 표출을 할 수 있어 복합기능의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



자료 : <http://www.smartstreets.co.uk/>

- 세종시청 앞 BRT 정류장 인근에서 자전거 통행량 측정을 위한 센서와 정보표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 이를 쓰레기통과 결합하여 '그린미디어'로 활용이 가능하며, 시설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최근 미세먼지의 정보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통에 미세먼지 정보표출 기능(ex. 미세먼지 신호등)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공익, 시정홍보, 교육 등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공목적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상업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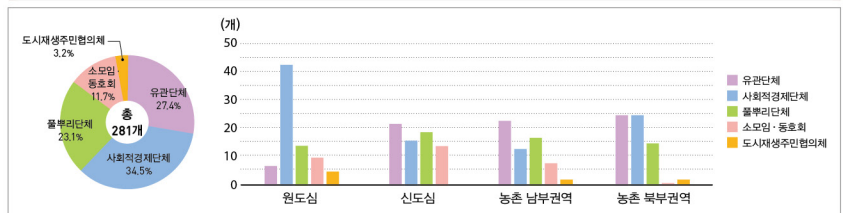
## I. 제안배경

- 현대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주민 움직임이 필요함
- 신도시와 읍면지역간 도시여건 차이가 큰 세종시에서는 지역갈등 완화 및 사회문제 해결에 마을공동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
- \*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을 의미함

## II. 세종시 마을공동체 현황

- 세종시 마을공동체는 2018년 4월 현재 총 281개로, 사회적경제단체가 97개(34.5%)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유관단체 77개(27.4%), 풀뿌리단체 65개(23.1%), 소모임·동아리 33개(11.7%), 도시재생주민협의체 9개(3.2%) 등으로 조사됨
- 동지역에 비해 원도심(조치원읍)과 면지역에 많이 형성되어 있음
- 신도심과 농촌 남·북부권역에는 유관단체(자치회, 부녀회 등)가, 원도심에는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가 많이 분포함

세종시 마을공동체 현황 및 유형별 분포도



-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터뷰 자료 결과,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작은 ‘이주·기대감’, ‘지역애착·관심’ 등의 5가지로 유형화되며, 대체로 교육효과, 소통·친교, 자기계발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체의 안정적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운영 지원’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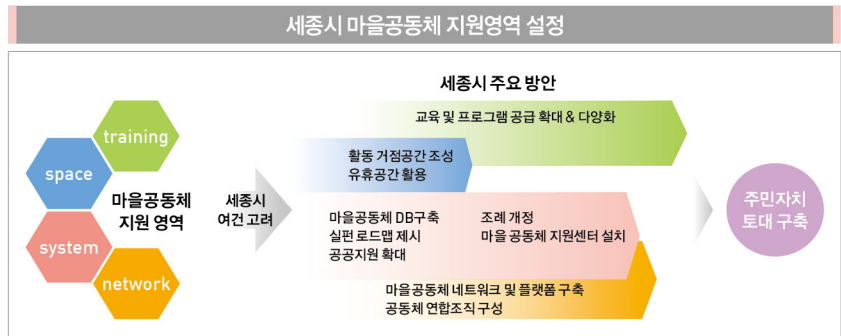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작



## III.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 공간(space)

- 거점공간 제공: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조건 중 하나로, 신도시(동지역)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공간을, 원도심에서는 이전적지 또는 노후 공공시설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유휴공간 활용: 공모방식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지역 활성화와 연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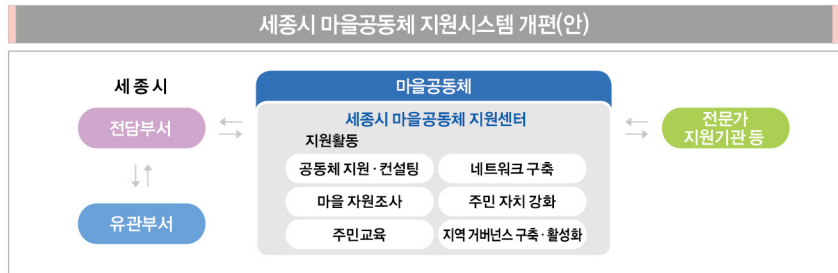
### 시스템(system)

- 마을공동체 DB 구축: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추진에 앞서 마을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실천 로드맵 작성: 세종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장·단기 실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실무담당자, 활동가들의 사업 추진과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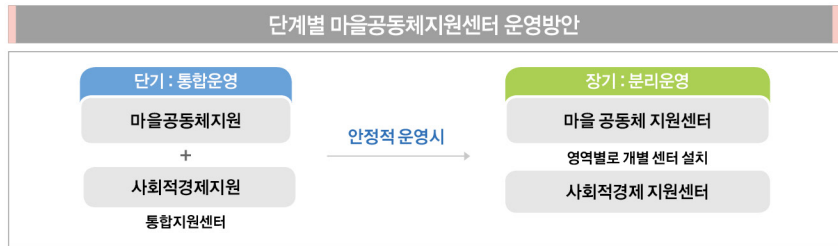
**세종시 마을공동체 장기 실천 로드맵(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종목표
마을공동체 관리	DB 구축	공공체 발굴 및 육성	완성	관리 및 활용		관리 시스템 완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준비	설립			분리 설치	전문조직 운영 안정화
교육	활동가 발굴/교육			맞춤형 교육		교육시스템 체계화
네트워크	설계/구축	공동체/공유 박람회	플랫폼 완성	적용		플랫폼 모델 구현
지원사업			공모/지속사업 확대 추진			교류 청리화
						지원사업 확대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향후 세종시의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에 기반한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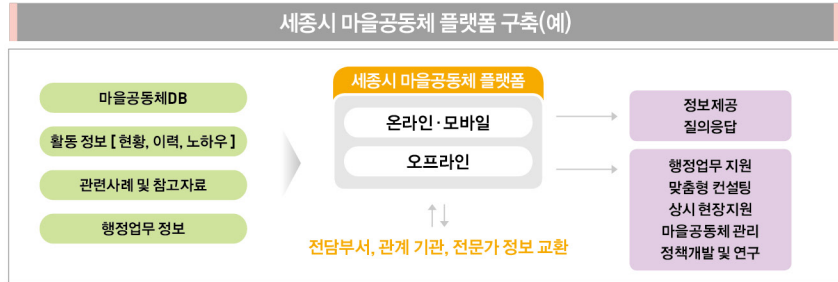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분야'의 통합지원센터 형태로 설치하고, 향후 안정화된 시점에서 분리하여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네트워크(network)**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간, 행정-마을공동체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네트워크 핵심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거점공간으로 활용함



**교육(training)**

- 단계별·맞춤형 프로그램 공급: 마을공동체의 형성, 도약, 확산 등 공동체의 역량과 활동성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I. 제안배경

###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논의

- 새정부의 출범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그 핵심인 재정분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18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 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확대 추진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분지표의 합리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함(지방소비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

###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시 특정지역의 세수집중현상 우려

- 지방소비세 배분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균형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16%, 20%, 21% 등이 각각 논의됨)
  - 지방소비세 비율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직적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지역에 집중될 우려 제기

### 합리적인 지방소비세 안분체계를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도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효율성 VS 형평성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분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II.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및 현황

### 지방소비세의 안분 개요

-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각 17개 시도별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의 11%로 하여 이중 5%와 6%의 배분방식이 구분됨
  - 본 내용은 5%의 배분방식(소비지수, 각 권역별 가중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 5% 분의 지방소비세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안분액) =

$$\text{지방소비세과세표준} \cdot 5\%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가중치}}{\sum_i (\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 \times \text{가중치})}$$

- 시·도별 소비비중(가중치: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매년 1월 1일 발표한 민간최종소비지출
- 여기서  $i$ 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재구성

- 세종시와 같은 변경구역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안분계산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따로 산출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됨

###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안분계산식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

$$\text{변경구역이 종래 속했던 시도의 지방소비세액} \times \frac{\text{변경구역의 인구}}{\text{변경구역이 종래 속했던 시도의 전체 인구}}$$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지방소비세의 안분현황 및 쟁점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의 광역시·도별 소비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가중치가 적용된 전·후를 비교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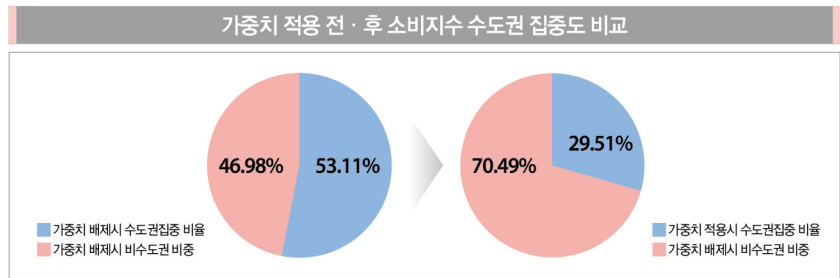
### 2017년도 지역별 안분비율(소비지수)

시·도	소비지수(%)		시·도	소비지수(%)	
	가중치 배제	가중치 적용		가중치 배제	가중치 적용
전국(계)	100.0	100.0	경기	23.96	13.76
서울	24.10	13.85	강원	2.68	4.61
부산	6.76	7.77	충북	2.75	4.72
대구	4.67	5.36	충남	3.93	6.08
인천	5.05	2.90	전북	3.15	5.42
광주	2.90	3.33	전남	3.05	5.26
대전	3.03	3.49	경북	4.60	7.93
울산	2.32	2.66	경남	5.98	10.31
세종	0.41	0.70	제주	1.07	1.85

자료: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내부자료 재구성

#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합리적인 안분체계 정립

- 2017년 기준 가중치 적용 전·후 소비지수의 수도권 집중도를 비교하면, 가중치 배제 전 소비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53.11%로 매우 높고, 가중치 적용 시 수도권 집중도(29.51%)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평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다라도 가중치 적용이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격차를 많이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가중치 적용 전 0.335에서 적용 후 0.264로 변화하였음(지니계수 1은 불평등도가 매우 높음을, 0은 매우 낮음을 의미함)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불평등도 분석

구분		불평등도		
총 세액 기준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불평등도 분석결과	Gini Coefficient	0.335	
		Atkinson index	0.5	0.106
			1	0.215
			2	0.468
		Entropy index	0.242	
	현행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에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불평등도 분석결과	Gini Coefficient	0.264	
		Atkinson index	0.5	0.067
			1	0.150
			2	0.362
		Entropy index	0.162	

## 현행 안분체계의 한계(쟁점)

- 현행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이 그 지표로 활용되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되어 비거주자에 의한 지역 내 소비가 해당지역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있음(배분지표에 대한 타당성 한계)



- 지역간 균형재정을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체계, 너무 단순화된 권역별 구분(수도권 100%, 수도권외 시 200%, 수도권외 도 300%)으로 세수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합리적인 안분체계 검토를 위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III. 시사점

#### ● 효율성 vs 형평성에 관한 가치 정립

-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가치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전자는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재정자원이 더 많이 가야한다는 측면, 후자는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 정부의 자원 배분에 있어 정치적인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할 때,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지역의 소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세 구조 설계

-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에 있어서 지역의 소비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방식인 소비지수,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근거한 배분이 한계성은 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배분안의 도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이견도 제시되는 상황
  - 즉, 현재 소비지수, 권역별 가중치는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에 지방소비세의 주요 안분체계로 활용된다고 판단됨. 이에 현재의 배분 안을 지속할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배분기준 및 권역별 가중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것은 인구규모를 통한 배분과 지방소비세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소비지수 규모를 근거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배분지표를 인구규모, 지역별 가중치를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해 안분할 것을 제시하고자 함
- 효율성을 강조해 지역별 가중치를 배제한다면, 배분지표에 있어서 지방소비세를 대표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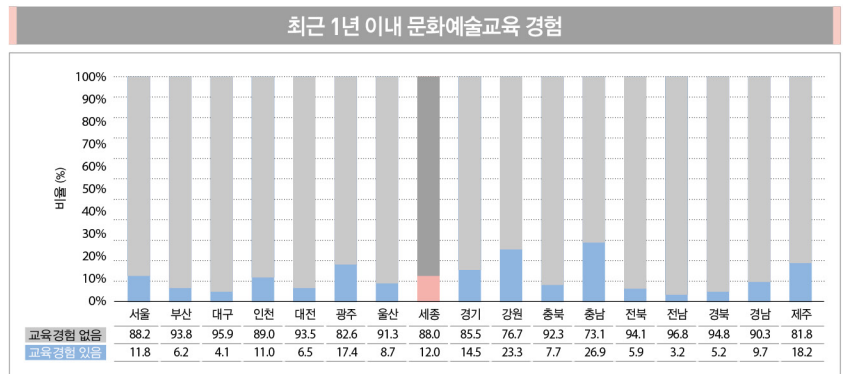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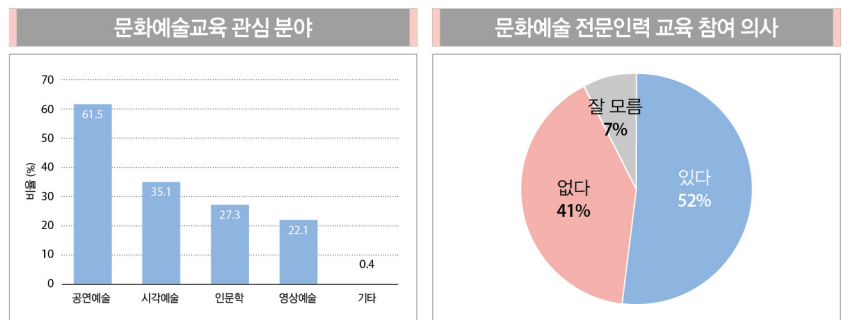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경험

- 광역 시·도별로 최근 1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세종시민의 비율(12.0%)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 관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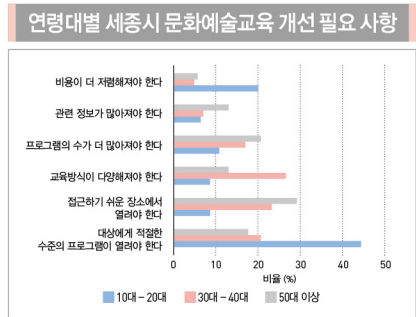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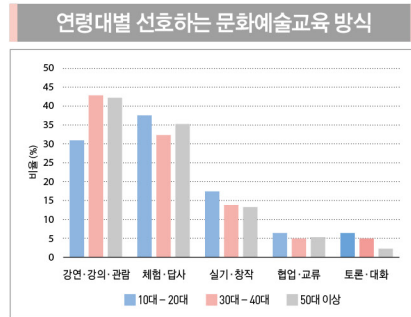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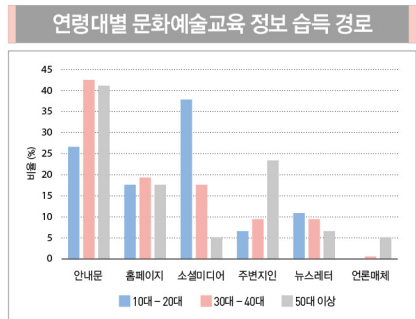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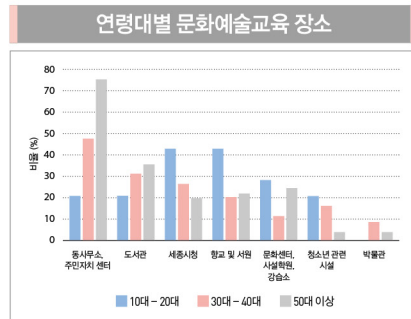
주: 관심 분야는 복수로 응답. 각 분야별 포괄 장르는 다음과 같음(공연예술: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 시각예술: 미술, 건축, 사진, 디자인 /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 심리 / 영상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자료: 세종문화재단(2018),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공연예술(61.5%) 분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각예술(35.1%), 인문학(27.3%), 영상예술(22.1%) 순으로 조사됨
- 시민 대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매개자·전문가 육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상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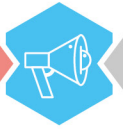
# 세종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

## 연령대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인식

-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장소에 대한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에 속할수록 동사무소, 주민자치 센터와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의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0대~20대의 경우 소셜미디어, 50대 이상인 경우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음
- 10대~20대는 체험·답사, 실기·창작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를 나타냈고,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강연·강의·관람과 같은 정보 전달식 교육을 선호함
- 10대~20대는 교육대상별 프로그램의 세분화와 교육비용 축소, 30대~40대는 교육방식의 다각화, 50대 이상은 교육 장소 접근성 제고의 측면에서 세종시 문화예술교육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함



주 : 문화예술교육 장소에 대한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구성됨.  
 자료: 세종문화재단(2018),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III. 시사점

#### ●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는 고령인구가, 동 지역에는 유소년 인구가 비교적 많음
- 읍·면·동별 주민 특성을 고려해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주민 연령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거지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시설에 대한 편중 정도는 약화되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각화 필요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종시민의 경험 기회를 제고하고 수요를 창출함
-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기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역 간 통합·융합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필요

-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토록 함
-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매개자 활동의 활성화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음

#### ● 대상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접근 필요

- 연령대별로 문화예술교육 장소, 정보 습득 경로, 선호하는 교육 방식, 개선 요구사항이 상이하였음
- 특히, 10대~20대에서 대상별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홍보 추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 문화예술교육자원 DB' 구축
- 세종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세종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생애단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http://www.dsi.re.kr>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 530-3500 Fax. (042) 530-3528

발행인. 박재묵 편집인. 이윤희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